



경북 칠곡·군위·의성·안동

'역사·전통' 포교 콘텐츠로 활용

칠곡 한국전쟁의 격전지로 유명한 칠곡은 가톨릭 신자들의 최종 피난처였던 한티순교성지와 성베네딕도 왜관 대수도원 등이 있는 가톨릭의 성지로 가톨릭 교세가 강한 반면 불교세는 위축되어 있다.

따라서 칠곡에는 사찰 수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사암연합회 역시 결성되어 있지 못하다. 다만 칠곡의 중심 왜관읍에 있는 흥국사가 칠곡 불교를 이끌며 불법홍포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110년 전 나라를 일으킨다는 뜻으로 세워진 흥국사는 나라를 위해 스러져간 호국영령들의 넋을 달래는 천도재를 매년 봉행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지역신행단체로는 칠곡군청불자회와 칠곡군청년회가 있다. 청년회는 명목만 있을 뿐 활동이 활발하지는 못하며 칠곡군청불자회(회장 윤명덕)는 3년 전 결성되어 70여명의 회원들이 분기별 정기법회와 년 1회 사찰순례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외 가산면에 금곡사와 대문사가 있고, 지천면에 망월사, 동명면에 송림사와 도덕암 등 20여개의 사암이 자리하고 있으나 대외적인 활동은 미미한 편이며, 그나마 활동을 하는 사찰은 칠곡이 아닌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군위 외지고 한강진 산골고장 군위는 김수환 추기경의 고향으로 칠곡 못지않게 가톨릭 교세가 큰 지역이다. 그러나 군위불교는 전혀 기척이 없고 당당하다. 오히려 지난해 4월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이 군위사원연합회장에 추대되면서 자그마한 산골고장에 새바람을 일으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초파일에는 처음으로 군민회관 앞에서 초파일 점등법회를 개최했는가 하면 지역불자들의 교육을 위해 3개월 과정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해 군위지역불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게다가 지난 1월 29일엔 군위불교교양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합창단, 봉사단, 산행단까지 만들

었다. 산행단은 삼월 삼짇날을 맞아 군위 지역에 있는 마애불을 찾아가 다례재를 올릴 예정이며, 합창단은 봉축행사를 위해 월 2회 연습에 들어간다.

군위불교의 이런 성과는 은혜사 말사 6개 사찰과 군소종단 15개 사암으로 구성된 사원연합회의 화합된 활동으로 기인한 것. 군위사원연합회는 그동안 의경 위문, 교육발전기금 모금, 소년소녀가장 후원 등 다양한 사회봉사 등 대외활동을 꾸준히 펼쳤다.

그 외 지보사 주지 해운 스님은 군위군청불자회인 금강회를 이끌고 있고, 동림사가 지난해 불부처 사원연합회 총무를 맡았다. 소보 법주사는 비구尼 수행처로 유명하고, 장차 스님노후복지시설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신홍사 범수 스님은 불교대학을 맡아 지

도하면서 신행단체를 창립하는데 일조했다. 스님은 일반인 신행단이 지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뒤 지역 사찰 스님들과 연결시켜 자체적으로 활동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 군위에는 지난 2003년 결성된 경찰불자회가 활동하고 있다.

의성 의성은 유교문화권지역으로 최근까지 불교에 대한 뒷배와 무시가 심했던 지역이다. 포교정화운동 이후 내륙 산골 오지라는 지리적 인자조건으로 가장 오랫동안 혼란기를 겪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5~10년 사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불교가 살아나고 있다.

특히 의성은 조계종 9개 사찰이 2000년 의성군불교사암연합회를 결성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체로 자리 잡았다. 의성군불

교사암연합회가 2002년부터 수탁운영하고 있는 의성군노인복지회관은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의성군 포교당 관을사주지 해라에서 개설한 6개월 과정의 불교대학은 불교대학을 나오지 않는 의성지역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그. 지난해에는 무려 106명이 넘는 회원으로 구성된 의성군청 불자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5년 남짓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암연합회원 사찰 스님들은 한결같이 모든 일에 함께 하고 화합해서 활동이 즐거웠다고 말한다. 복지관 운영도 함께, 무료 급식도 함께 지역사회 현안문제 대처도 함께 했다는 자부심이 크다. 물론 활동의 중심에는 교구본사 교운사가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행사를 주도하는 여느 교구본사와는 사뭇 다르다. 조용한 가운데 정신적

구심적 역할을 하는 모습이 특이하다.

최근 의성불교의 승승장구를 시샘하듯 사암연합회원사찰간에 약간의 마찰이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의성군불교사암연합회는 더욱 크게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긍정하고 있다. 또 앞으로 지역 65개가 넘는 타종단의 사암까지 끌어안고 나아가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안동 유교문화권의 중심인 안동 역시 불교에 대한 탄압이 심했던 곳으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상당수의 사찰이 소실됨에 따라 지역사찰들의 사세도 보잘것없고 활동도 가장 어려웠던 지역이다. 그러나 80년대 의성 고운사에 군일 스님이 들어오면서부터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해 90년대 지역 사람들의 지역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불교위

상이 상당히 높아졌다.

특히 종단과 종파를 초월한 24개 회원사찰들로 이뤄진 안동사암연합회가 안동불교를 이끌면서 지역불교계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는 초파일 제등행진과 세계적인 축제 자리잡은 국제 탈춤페스티벌에서의 유등제와 범패시연 등은 지역에서 고정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또 지난해 처음 개최된 봉축음악회도 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활동하는 회원 사찰로는 안동시내에서 어린이집과 불교대학을 운영하면서 안동사암연합회 구심적 역할을 하는 대원사가 있고, 안동 거사협회 활동 지원과 안동교도소 불자교정회를 이끌고 있는 범법사가 있다. 특히 대원사는 풍물, 민요 강습 등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또 최근 도량정비를 마친 태화동 서약사가 도심 속 산사의 기도도량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고,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박물관이라고 할만한 유적을 지켜내고 있는 봉정사는 전통등 전시회를 통해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천태종 해동사가 신도회, 봉사회, 합창단, 어린이회, 청년회, 사물놀이 등 다양한 신행회를 조직해 불법홍포에 선두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해동사가 운영하는 해동 유치원은 1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지역 최고의 유치원으로 이름이 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동사는 안동시 템플스테이 시범사찰로도 정평이 나 있다.

호텔과 같은 뛰어난 숙박시설을 갖춘 해동사는 다도회, 요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본격적인 한국불교문화체험 공간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 외 법화종 대성사가 지역에서 대규모 정신장애인을 위한 수용시설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신행단체로는 젊은 불자 30여명이 생활불교운동을 하는 안동불교신행회와 안동교도소 교정직공무원불자회, 안동시청불자회, 경찰불자회가 있다.

칠곡·군위·의성·안동=배지선 기자

칠곡 흥국사 군청불자회 등 지역 신행 견인

군위 사원련 중심대 봉사·문화 활동 활발



군위불교대학은 지난 1월 군위군민회관에서 합창단·봉사단·산행단 등 3개 신행단체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역 포교에 나섰다.

의성 노인복지관·불교대학 불심 화합의 축

안동 관광자원 다양... 신행·전법 기회로



지난해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의성에서 열린 '추억의 운동회'에서 탄하 스님이 어르신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 있는 모습. 의성군노인복지회관은 모범적인 운영으로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신도조직 효율적 활용

혜승 스님 (의성 교운사 주지)

조계종 제16교구본사 주지 혜승 스님은 앞선 주지스님의 공덕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며, 스스로를 낮추었다. 하지만 자연스레 드러나는 스님의 노력과 입적은 감출수가 없다. 조직적인 신도회를 새롭게 구성한 스님은 여러 가지 문화재적 자료를 발굴하여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비를 책정하는 등 내실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신도조직 활성화와 포교를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은 스님은 "모든 불자들이 불교교양 대학 교육을 통해 참다운 신행생활을 철저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아침 저녁 3분의 시간을 할애해 서원을 세우고 참회를 하며 살아가는 참 불자의 길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말사 주지 스님들이 지역주민들과 하나가 되어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복지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를 강조한 스님은 안동노인복지관 수탁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역사적' 가람에 새 기운

문인 스님 (안동 봉정사 주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 있는 봉정사는 1999년 영국 여왕이 다녀가면서 유명해졌다. 1999년 스님이 부임할 당시만 해도 오지였던 봉정사는 그동안 집 안까지 도로가 뚫리

고 가람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스님은 전통문화 재보존 측면에서 큰 변화를 원치 않는다. 템플스테이도 2~3가족 15명으로 한정해서 받고 있을 뿐 전통가람을 훼손할 만한 프로그램 운영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2003년부터 매년 가을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에 맞춰 전통등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더욱 유명한 봉정사는 현재 유물전시관 내부를 수리 중이다.



'삼국유사' '일연스님' 현장에 매진

상인 스님 (군위 인각사 주지)

"삼국유사는 우리나라가 독립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임을 밝히는 단군시조에 대한 근거가 있는 귀한 역사서입니다." 상인스님은 2000년 인각사에 부임한 이후 산사음악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 시낭송회, 학술 세미나 등의 삼국유사 문화제를 개최하고, 2003년에는 삼국유사 영인본을 제작하는 등 일연선사와 삼국유사 집필자인 인각사 재조명 작업에 몰두했다. 스님의 이러한 노력은 보각국사비 재현에도 한 몫을 했다. 또 올 가을에는 삼국유사 독일어판을 독일 국제 도서박람회에서도 소개한다.



지역사암 화합이 '화두'

동경 스님 (의성 윤림사 주지·의성군불교사암연합회장)

"지금까지 의성불교는 9개의 조계종 사찰이 모두 힘을 합쳐 잘 이끌어왔습니다. 앞으로 다른 종단 사암을 끌어안을 생각입니다." 올해 초 제3대 의성군불교사암연합회장에 추대

된 동경 스님은 사암연합회 활동을 타종단 사암까지 확대시키기 위해 이미 50여개의 타 종단 사찰을 둘러보고 뜻을 알아본 상태다. 10년 전 폐허직전의 운암사에 들어와 가람을 정비하고 안평면 25개 마을법회를 이끌며 정신적 지주역할을 담당해 온 스님은 이제 사암연합회장으로서 종단을 초월하여 의성불교를 이끌겠다는 각오다.



신행단체 조직 '가장 큰 불사'

정수 스님 (칠곡 흥국사 주지)

칠곡에서 제대로 된 포교를 하기 위해 2000년 흥국사에 들어온 스님은 복잡하게 얽힌 사찰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조계종단에 등록한 후 도로확장, 전불전 불사 등을 통해 도량을 정비하고 정법홍포를 위해 포교일선에 나섰다. 특히 신도회, 보림회, 화생회, 청년회, 거사협회 등을 통해 매년 초파일 행사를 주도하면서 칠곡 불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나선 스님은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불교유치원 운영과 불교대학을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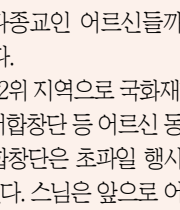
"어르신 잘 모셔야 세상 행복"

탄하 스님 (의성 모선암 주지·의성군노인복지회관장)

의성군노인복지회관장 탄하 스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어르신들에 대한 사랑이 묻신 느껴진다. 의성지역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관장님' 하더니 이제는 '우리 스



님'으로 통한다. 심지어 타종교인 어르신들까지 '스님'하며 합장하기 예사다. 의성은 전국에서 고행화 2위 지역으로 국화재배, 탁구, 할아버지 중창단, 실버합창단 등 어르신 동아리 활동도 활발한데, 실버합창단은 초파일 행사에서 찬불가를 합창하기도 했다. 스님은 앞으로 어르신들에게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 경제적 안정을 주기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생각이라고.



어린이포교 남다른 열정

정우 스님 (안동 대원사 주지·안동사암연합회장)

정우 스님은 1996년 어린이집을 지어 운영하겠다는 원력하나라 대원사에 들어와 재정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모든 신도들이 반대하는 불사를 이루고, 보수적인 안동에서 불교의 위상을 세워 나갔다. 스님의 노력은 1998년 선재어린이집과 불교대학을 개설하면서 젊은층과 남성들을 불자로 끌어들이면서 젊은 불교 실천하는 불교의 위상을 정립했다.



스님은 다양한 NGO 활동을 통해 지역현안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지역사회발전의 중심이 됐다.

노인복지·신도교육에 역점

해몽 스님 (의성 대곡사 주지)

2001년부터 4년간 의성 사암연합회 초대 부회장과 2대 회장을 역임한 스님은 불법 홍포에 새 기운을 불어넣은 주역중의 하나다. 스님은 의성 초파일 첫 점 등행사부터 의성군노인복



지회관 수탁, 의성불교교양대학설립까지 의성불교의 변화를 몸으로 겪었다. 스님은 대곡사에 6.6Km 등산로를 개발하고 저조암을 복원하는 등 53불신앙으로 유명했던 통일신라시대 전통사찰의 면모를 갖춰놓았다.

불자들에게 새 신행바람

범수 스님 (군위 신홍사)

"모든 것을 잃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발원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범수 스님. 스님은 2003년 9월 군위군 우보면 도봉산 중턱에 외따로 있는 조그마한 신라전년교할 신홍사로 부임해 후 군위불교사암연합회가 개설한 3개월 과정의 군위불교대학을 이끌면서 지난 1월 봉사단, 산행단, 합창단을 창단하는 등 경북 군위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스님은 산골오지 신홍사를 정갈한 수행도량으로 바꾸고 있다.



지역불자 '건강' 지킴이

송원규 거사 (대성복지재단·대성그린병원 이사장)

1981년 11월 법화종 대성사를 모태로 설립된 대성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 송원규 거사는 정신보건요양시설인 대성그린빌과 대성정신재활종합센터, 신경정신전문병원인 대성그린병원을 연계해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와 정신건강을 추구하고 있다. 또 대성사회복지재단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말부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노인 의료복지시설인 실버케어빌을 개원하기도 했다.

